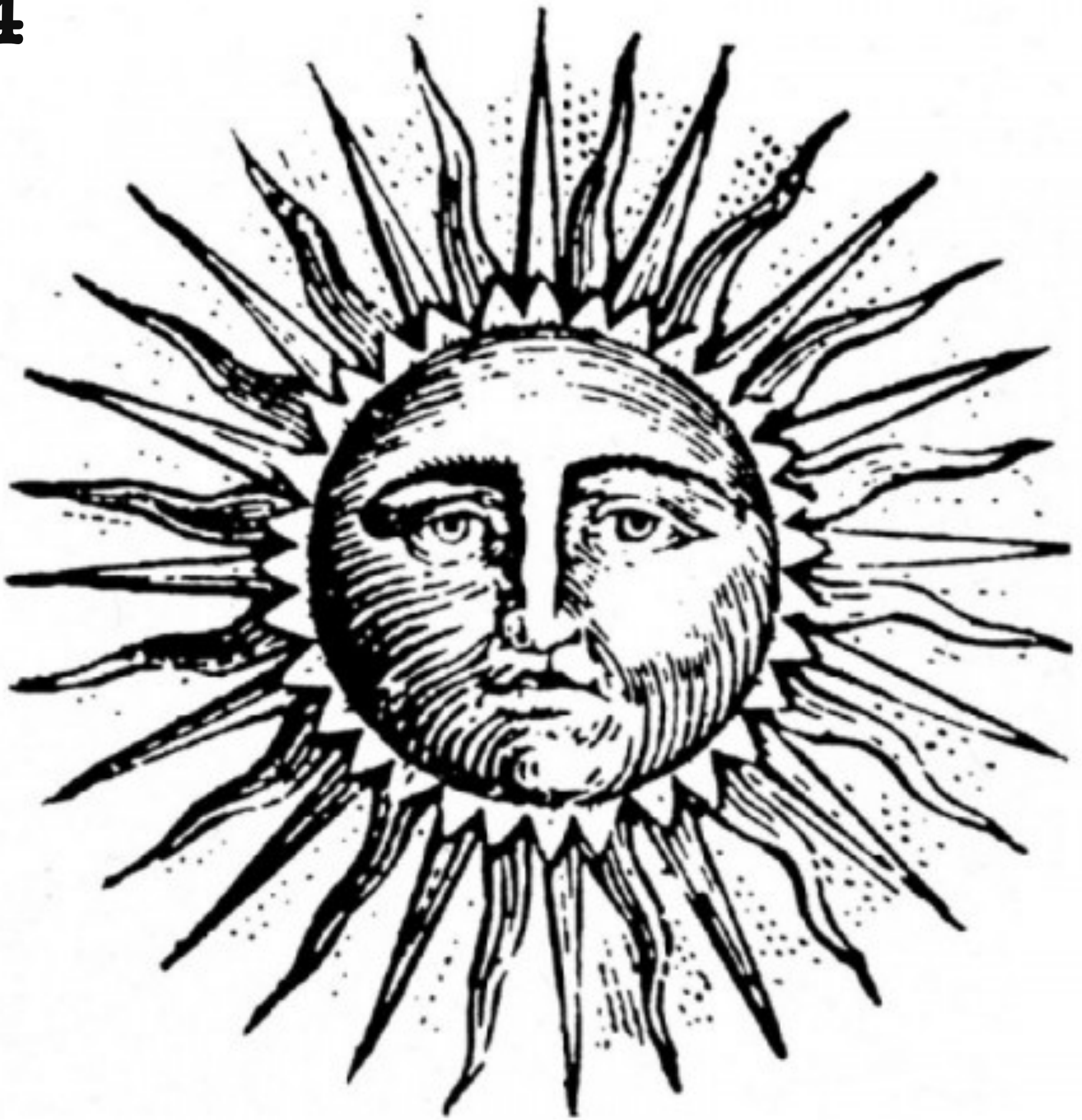


4



THE ALCHEMIST OF OXYGEN

2019년 3월 28일

학생자율세미나 Chemifest
서울대학교 500동 L304호
오후 6시 30분~9시 30분
HOST 공일환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연금술을 낳았다. 부와 권력을 한몸에 쥐고, 영원히 죽지 않고 젊고자 했던 이들은 어떻게 자연을 바라보았나? 오늘 우리는 하루 동안만 연금술사가 되어 생동감 넘치는 자연을 바라본다. 동서양의 기본 연금술의 원리를 습득하고 간단하게나마 연금술의 "실험"을 진행해 본다.
현대 화학의 이행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연금술은 왜 과학이 될 수 없는가? 짧게 과학철학적 논의를 살펴보면, 단순히 멍청한 지난 생각으로 과거를 치부해 버리지 않게 되기를.

Reading Materials & Supplements

서울대학교 강의

김봉국, 과학과 근대사회, 8강_과학혁명
홍성욱, 과학의 철학적 이해, 1주~3주
조인래, 과학철학

책

앨리스 쿠퍼트(박진희 옮김), 연금술 이야기, 민음사, 1995
장하석, 과학, 철학을 만나다, 지식플러스, 2015
Thoma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50th anniversary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1962)